

핵심주제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8년 10월 19일, 'Komsomolskaya Pravda'

2019동방경제포럼 기간 확정

제5회 동방경제포럼은 2019년 9월 4-6일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포럼 일정은 다자 국제 행사 일정표에 기반하여 결정되었다.

코바코프 대통령 자문관은 내년 5주년을 맞이하는 포럼에 아태지역 경제로 극동이 통합되기를 바라는 고위급 방문단들이 다수 참석할 것을 확신하였다.

<https://www.kp.ru/daily/26897.7/3941527>

2018년 10월 12일, TASS

푸틴 대통령, 제4회 동방경제포럼 관련 지시사항 확정

러시아 대통령 지시사항의 대부분 극동 혁신기술발전, 혁신 사업 및 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극동에 대규모 나노기술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가 루스키섬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로봇공학, 의료, 바이오기술, 무인교통, 선박, 환경 분야의 혁신 프로젝트 추진, 첨단기술 검증 및 시범도입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루스키섬에 빅데이터, 정보보안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테크노파크와 디지털발전센터 조성도 검토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극동연방대학교를 기반으로 극동연방관구 공무원들과 사업가들을 위한 디지털경제 경영 분야 교육 과정을 개발할 것을 지시하였다.

<https://tass.ru/ekonomika/5667418>

푸틴 대통령, 2019동방경제포럼에 인도 총리 초청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10월 5일 인도 국민 방문 중 모디 총리를 제5회 동방경제포럼으로 주빈 자격으로 초청하였다.

프라브후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끄는 인도 사절단은 2018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바 있다. 인도 대기업 경영자들도 사절단에 포함되어 극동 내 러시아-인도 합작프로젝트 추진을 논의하였다.

<https://tass.ru/ekonomika/5642137>

극동 국가정책

2018년 10월 30일, Vesti

극동연방대학교의 첫 해외 대표부 일본에 개설

도카이대 내 극동연방대학교 대표부 개소식에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참석하였다. 대표부 개설을 통해 양 대학은 보다 활발하게 학술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교육과정을 추진하며 러일관계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https://www.vesti.ru/doc.html?id=3077486&cid=17>

2018년 10월 25일, 'Interfax'

푸틴 대통령, 극동용 화물여객선 건조 지시

러시아 정부는 캄차카 반도, 사할린, 마가단 주, 연해주, 쿠릴열도의 항만 간 정규항로를 위한 선박 건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9월 10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있었던 국무회의 결과로 러시아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내렸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main.asp?id=977656>

2018년 10월 18일, TASS

블라디보스토크 박물관, 극장 종합단지 연말 전 착공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1100석 규모의 마린스키 극장 콘서트홀, 러시아 4대 박물관들인 예르미타지 박물관, 트레티야콥스카야 갤러리, 러시아 박물관, 동양박물관의 전시관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단지 내 고등음악연극대 건물도 포함된다. 루스키섬에 차이콥스키 모스크바 국립음대 분교, 바가노바 발레 아카데미 분교도 들어설 예정이다. 대략적인 프로젝트 예산은 300억 루블이다. 단지 완공은 2023년 중반으로 계획되어 있다.

<https://tass.ru/v-strane/5688255>

2018년 10월 5일, Rambler.ru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 과학발전계획 수립에 참여

발전 계획에 따라 석유가스화학연구소, 극동해 대륙붕 지질연구소, 나노기술센터, 첨단 레이저기술센터를 포함한 여러 과학 및 설계기술부를 설립할 예정이다.

<https://tass.ru/v-strane/5688255>

2018년 10월 30일, 'Vostok Rossii'

일본 투자자,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지방에 공장 설립 계획

Tokyo Rope International 사는 극동에 다수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 중이다. 특히 특허받은 세계 유일의 혁신 고압송전선 케이블 코어 생산 기술을 적용한 공장도 포함된다. 프로젝트 규모는 78억 루블이다.

또한 기업측은 극동에 높은 가공율의 목재가공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며 규모는 60억 루블이다.

<https://www.eastrussia.ru/news/yaponskiy-investor-planiruet-zapustit-zavody-v-primore-i-v-khabarovskom-krae/>

극동 개발 신규 정책: 성공사례

2018년 10월 12일, TASS

극동에 148개 신규 산업체 가동

해당 프로젝트들의 총 투자규모는 1590억 루블이며 12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관련 내용은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극동 투자프로젝트 추진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밝혔다.

선도개발구역들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총 1375개의 투자프로젝트들이 계획되어 있으며 전체 투자규모는 3조 8000억 루블이다. 이 업체들은 극동에 13만 4000개의 일자리를 2025년까지 창출하게 된다.

<https://tass.ru/ekonomika/5668616>

동방경제포럼 조직사 -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및 전시회 행사 조직 분야 최대 회사이다.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전시회 및 공공행사 조직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및 이미지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은 행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관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총체적인 러시아 및 글

www.roscongress.org